

# 조선대 이사회, 이번엔 임시이사 '꼼수'

## 22일 이사회서 선임 못하면 교육부에 파견 요청키로

### 한달만에 연 이사회... 학교 구성원·지역민 여론 또 외면

조선대 이사회가 조속한 차기 이사진 구성을 바라는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의 여론을 또다시 외면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달 17일에 이어 한 달 만에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뤘다. 특히 이사회는 대학 체면이나 위상은 고려치 않은 채, 다음 회의에서 정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키로 해 학생과 교수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선대는 1987년 임시이사 체제 이후 22년 만인 2008년에야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같은 역경을 이겨내고 호남 거점 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또다시 임시이사 파견을 거론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15일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현재 정인 9명중 공석인 정이사 1명을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하고, 이것이 부결될 경우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1명이 공석이어서 8명이 있으며 이들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다.

이사회는 임기가 끝난 이사 선임을 위해 그동안 8명의 이사중에서 6명을 차기 이사로 선임하고, 나머지는 개방이사(3명)로 뽑으려 했다. 또 한편으로 정원 중 공석인 이사 1명을 먼저 뽑으려고 했으나 이들 안건 모두 재

선임을 원하는 이사들로 인해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는 공식인 이사 1명을 먼저 선출, 후임이사 선임 문제를 현재 8명이 아닌 9명이 다루기로 하고 오는 22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만약 이마저도 부결되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시이사 파견은 대학내 자치기구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교육부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임시이사 파견요청의 조건으로 내세운 공석인 정이사 1명 선출도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 중 1명으로 하기로 했다.

대학자치기구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사 연임을 위해 밀정한 대학을 임시이사 체제로 돌리려하고 있다"면서 "정이사 1명도 반드시 개방이사에서 추천된 인물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추천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임기가 만료된 조선대 이사로는 이사장인 강현욱 전 농림수산·환경부장관, 주광일 전 국민고층처리위원장, 박성수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이원구 SM이 성형외과 원장, 김택민 전 조선대 학생처장,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 강창원 전 조선대 감사, 김용억 동산대 교수 등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0분 해질 19시 47분 달출 12시 55분 달몰 --시--분

**집중더위** 기온 높고 일부지역 폭염주의보 내리겠다.

광주	구름맑음	25/32℃
목포	구름맑음	25/31℃
여수	구름맑음	25/29℃
나주	구름맑음	24/32℃
완도	구름맑음	25/32℃
구례	구름맑음	24/33℃
강진	구름맑음	25/31℃
해남	구름맑음	25/32℃
장흥	구름맑음	25/31℃
순천	구름맑음	24/31℃
영광	구름맑음	25/32℃
진도	구름맑음	25/31℃
전주	구름맑음	26/34℃
군산	구름맑음	25/32℃
남원	구름맑음	24/32℃
옥산도	구름맑음	24/29℃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주간날씨 기상내년전화 :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씨						
최저/최고	25/31	25/32	25/32	24/31	24/31	25/30

# 문 걸어 잠근 '불통 광주교육청'

## '공짜 연수' 비난 불구 강행... 교장들 "비용 25% 부담" 영어강사 재점거 우려 청사 봉쇄...교육청노조도 집회

광주시교육청이 뒤숭숭하다.

교장단 무더기 공차 해외연수 추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최대 우군인 전교조마저 등을 돌리는가 하면, 영어전문 강사들의 시위로 교육청 청사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여기에 오는 18일 교육청공무원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15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모든 출입문이 잠겨있었다. 특히 교육감실로 통하는 본관 현관과 별관 연결문, 교육감실로 통하는 철문 3곳은 굳게 닫혔다. 출입문 앞에는 4~6명이 3교대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시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임용"을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한 이후의 풍경이다. 12일 오후 교육감실 점거농성은 풀렸지만 비상근무는 계속되고 있다. 재점거를 우려해 서다.

이로 인해 한 주가 시작된 15일 월요일 교육청 근무자와 민원인들은 청사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장외국 교육감마저 본관 현관을 두고 옆문을 통해 드나들었다.

이날 교육청을 찾은 민원인 A씨는 "진보교육감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대화로 풀어야할텐데 문을 잠그고 그 문을 직원들에게 지키게 해 황당하다"며 "꼭 구사대를 보는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 교육감도 교육청 항의시위 경험이 있을 텐데 대화가 안 된다고 문을 봉쇄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불통 이미지가 더 각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항의가 빚발치자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봉쇄한 출입문을 모두 해제했다.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청노조는 "교사와 직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교육청 규칙을 개정해 중학교 교사들에게 교원연구비를 보전하는 것처럼 직원들에게도 관리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5시 교육청 앞에서 일방적 보수삭감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비단 여론이 거센 교장단 해외연수는 여행사 선정과정의 부정 개입 가능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여행사를 선정하면서 부정개입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초·중학교 교장단은 연수비용의 25%를 자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초·중학교 교장단협의회는 최근 회장단 회의를 각각 열어 광주시의회가 지적했던 테마연수의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연수비용의 25%를 자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교육감실을 지켜라" 1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이 나흘째 봉쇄됐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영어 전문강사 재임용"을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한 직후 교육청 직원들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33도 뺏벌...곡성·구례·화순 '폭염주의보'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곡성, 구례, 화순 등 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를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광주·전남은 화순 34.3도, 구례 33.1도, 영암 32.9도, 광주 32.3도 등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기상청은 영광, 목포, 무

안, 보성, 광양, 순천, 함평, 진도, 고흥, 여수, 장성, 영암, 신안, 광주의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기온이 25~28도를 기록하는 등 열대야 현상을 보였으며 당분간 지속된다고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러 광주와 전남지역은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겠다"고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음식점 위생 관리 등 스마트폰 활용 현장서 처리

45개 행정단속 서비스 시작

안전행정부는 16일부터 각종 행정단속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에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법령을 스마트폰으로 지도와 연계해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 단속 점검 전 지도와 행정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원산지 표시 여부 점검, 폐수·분뇨 배출 시설 점검, 노래연습장 지도 점검, 육외광고물 현장조사 등 45개다.

/연합뉴스

**ELYSIA** 엘리시아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맞춤형실 완비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이동금액 (취미 1인기준)  
★平日 20,000원~25,000원  
★주말·공휴일 25,000원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정식 코스요리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렁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이상)	
특초밥	15,000원	<b>주말 가족특선</b>	
생선구이	15,000원	4인 한상차림 100,000원	
굴비정식	20,000원	(토요일,공휴일에 한함)	
나고야정식	25,000원		